

홈 > 뉴스 > 지역 > 원주

원주문화재단 설립 '가시화'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 대안으로 검토
시, 타 지역 벤치마킹·지역 문화재단과 접촉

2008년 11월 26일 (수)

차독남

문화예술의 체계적 지원과 발전을 위한 (가칭)원주문화재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원주시는 지속적인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원주문화재단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문화재단 중 비교적 성공 모델로 꼽히고 있는 전북 익산을 비롯해 경기 부천과 성남을 벤치마킹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이곳 지역 문화재단과 접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주시가 이처럼 문화재단 설립을 서두르는 것은 최근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기금을 대체할 만한 대안으로 재단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오는 2011년까지 일반회계에서 기금 5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었지만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29억원에 그친데다 조성금액에 따른 연간 이자도 5%(2002년 말 기준) 미만으로 이자수익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지역 문화예술계는 재단 설립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데 이어 최근 김주완 원주예총 회장이 김기열 원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 가시화 됐다. 또 문화예술분야가 무엇보다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재단 설립 초기단계부터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상훈 원주민예총 지부장은 "재단이 지자체 차원에서 설립되겠지만 원주가 진정한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운영권까지 행정의 간섭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원주/차독남 cdn486@kado.net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